

전통 존중하면서 합리성 강화되는 추세



사회 분야 이념 성향은 혼전 성관계, 웃어른에 대한 복종, 집안 체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선배 대접의 다섯 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2003년 한국인

의 사회적 이념점수는 작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화 없이 중도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항목별로는 1년 전과 차이를 보였다. '웃어른의 말씀이라도 사리에 맞지 않을 경우 따져서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늘어났고, '부모가 반

대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도 증가하였다. 이 두 항목에서는 진보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회적 태도의 보수화 경향도 발견된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나이에 따른 선배 대접 경향도 약간 강화·유지되고 있으며,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고려하는 태도도 약간 증가하였다. 결국 한국인들의 사회적 이념 성향은 전통을 존중하되 합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집단별로는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50대 이상이 청·장년층보다 집

안 체면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40대 이상이 20·30대보다 나이에 따른 선배 대접을 잘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학 재학 이상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고졸 학력 집단이고, 중졸 이하 학력 집단은 가장 보수적이다.

젊을수록 고학력자가 많고, 농촌에는 고연령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의 사회적 이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